제주교육대학교 논문집 (1998)
제27집 pp. 109~137

사회과 학습자료개발을 위한 지역연구의 실제

정 광 중*

〈 목 차 〉

Ⅰ. 들어가며
Ⅱ. 학습자료개발을 위한 지역연구의 실제
1. 문헌연구
2. 지형도의 검토와 분석
3. 현지조사
4. 지도(주제도)와 관련도표의 작성
5. 조사결과의 정리
6. 보고서의 작성
Ⅲ. 나오며
* 참고문헌

Ⅰ. 들어가며

사회과 교육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전통적으로 강조되어온 학습방법 중의 하나가 현장학습(야외학습, 실외학습)이다. 현장학습의 필요성은 초·중등 교육과정을 전제로 할 때, 지역지리의 관련단원을 학습하는 데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인식된다. 특히 학습과정에서 지리적 현상에 대한 기초적 개념 정립이 필요한 초등학교 4학년 과정부터는 현장학습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

* 제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전임강사

고 있으나, 대부분의 교육현장에서는 교사 개개인의 과다한 업무량과 과목별 시간 지정에 따른 타교과에의 영향 등 각종 교육환경의 열악성 때문에 현장학습의 필요성만이 강조될 뿐, 실제로 현장을 통한 구체적인 탐구학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각급 학교단위의 교육환경의 열악성만을 문제시 삼으며, 교육의 질을 무시해버리는 것은 정보화 시대 혹은 국제화 시대를 운운하는 최근의 사회적인 정서에는 근본적으로 오류를 범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더욱이 최근 초등학교의 경우, 열린교육의 점진적인 확대와 정착화를 목표로 삼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회과 수업에서 현장학습의 실천정도는 결과적으로 교육방법의 개선을 통한 사회과 교육의 질적 향상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

필자는 학교교육의 사회과 혹은 지리과 수업에서는 교사들이 적극적이며 실천적인 행위를 보일 때,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교육목표의 달성에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바쁜 교직생활 속에서도 자신의 망중한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교사 개인에게는 현장교육 관련의 연구실적과 개인적 성취의욕을 달성하며, 학생들에게는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의 틀을 벗어나 보다 가까운 지역의 여러 사회적·지리적 현상들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교사나 학생들 모두에게 사회과(지리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상과 같은 취지하에서, 교사의 망중한을 이용한 지역연구가 교사와 학생들에게 한 차원 다른 교육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전제하고, 교사의 지역연구를 위한 기본적인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교사들의 적극적인 학습자료의 개발을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역연구의 방법은 어디까지나 필자의 경험을 토대로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는 지역적 조건과 교사 개인의 시간적 활용도에 따라 다르게 전개할 수 있겠지만, 기본틀은 교사의 시간활용적 측면에서는 주로 주말이나 방학기간을 이용하고, 동시에 연구대상지역은 가급적이면 교사가 거주하는 주변의 소지역을 범위로 설정하고 있음을 부언해둔다.

Ⅱ. 학습자료개발을 위한 지역연구의 실제

지역연구는 지리학 분야 뿐만 아니라 민속학, 역사학, 인류학, 고고학 등 인접학문 분야에서도 활발히 원용되고 있는 학문적 방법론이다. 그러므로 지역연구의 방법은 학문분야별로 다소의 차이는 인정되지만, 이미 개론적이고 원론적인 틀은 보편화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1]. 따라서 본 절에서는 교사가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소지역을 전제하되, 시간적 제약을 최대한으로 극복할 수 방법을 토대로 서술하기로 한다. 나아가, 여기서 지적하는 소지역은 가령 1개의 취락(里)만을 포함하는 공간적 범위가 될 수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인접하는 2~3개의 취락의 범위가 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1. 문헌연구 : 관련문헌의 검토 및 분석

지역연구의 시작은 기존의 문헌연구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문헌연구의 근본적인 취지는 문제의 의식을 파악하고 연구의 목적을 확고히 하는데 있다. 예를 들어, 특정마을이나 특정지역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취락(마을)선정 혹은 지역선정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기존연구에 어떤 마을이나 지역연구가 행해졌는지를 확인해야만 같은 마을이나 지역을 선정하더라도, 연구시점과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연구에서 많이 등장하는 마을이나 지역은 그 만큼 연구의 주제나 소재가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많은 연구자들이 여러 각도에서 접근해 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선정의 문제는 특정주제와 연결시켜 생각해야 바람직하다.

문헌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실도 발견해낼 수 있다. 그것은 다름아닌 다른 연구자가 연구결과를 이끌어내기까지의 조사방법이나 자료의 수집과정 및 분석방법을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통 지역연구를 많이 경험하지 못한 경우에 가

1) 지리학 분야에서 지역연구의 방법론을 정리한 것으로서 다음의 문헌을 들 수 있다.
① 조동규편, 1988, 자연지리조사법(Ⅰ), 교학연구사, 416p.
② 조동규편, 1988, 인문지리조사법(Ⅱ), 교학연구사, 450p.

장 문제시되는 것 중의 하나가 현지에서의 구체적인 조사순서, 현지자료의 수집(자료출처 포함)과정, 현지에서 얻은 직·간접의 자료를 토대로 한 분석방법이다. 그러므로 기존에 연구된 문헌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은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짧은 시간내에 배우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첩경이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문헌들 중에서도 동일한 연구분야의 연구논문을 먼저 찾아내고 정독하며, 필요한 사항들은 즉시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2].

처음 단계에서 관련문헌의 조사는 선정된 주제나 지역명을 기초로 확대하고 연결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즉, '제주도의 지역연구'라고 한다면, '제주도' 혹은 '탐라'라는 지역명이 붙는 문헌을 먼저 조사하고, 그리고 이미 주제가 선정된 상태라면, 예를 들어 '기생화산', '문화재', '관광지', '돌하르방' 등 구체적인 연구대상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입수한 후, 여기에서 사용된 참고문헌들을 재차 확인하여 입수한다면 시간적으로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문헌을 발견할 수도 있으며, 더욱이 그 속에서 자신의 연구주제나 혹은 연구지역과 관련성이 있는 중요한 자료(과거의 상황기록) 들도 얻어낼 수 있다.

한편, 연구지역의 범위가 작으면 작을수록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문헌의 수는 한정되어 버리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단 한 개의 문헌도 입수하지 못하는 수가 있다. 이 경우에는 먼저 지역명을 우선순위로 한 문헌조사보다도 자신과 동일한 주제나 또는 주제내의 키 워드(key word)를 우선순위로 조사하는 방법이 적절하다. 여기서 굳이 소지역 단위로 조사할 경우에는 연구대상지역에 가깝게 위치하는 인근지역의 연구물이나, 성격적으로 유사한 지역의 연구물을 조사하는 차선책도 생각할 수 있다.

문헌조사나 분석은 우선적으로 연구논문에 대한 접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나, 이외에도 동일한 주제 및 유사한 주제를 토대로 쓰여진 전문서나 도지, 시·군지, 읍

2) 지리학 분야의 전체적인 연구논문의 조사는 다음과 같은 논문목록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① 이기석·윤정숙, 1982, 한국지리논문목록, 보진제, 237p.
② 이기석·한주연, 1988, 한국지리논문목록(1981-1985), 보진제, 284p.
③ 이기석·이영현, 1993, 한국지리논문목록(1986-1990), 백산출판사, 243p.
④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1997, 학계연구동향(1990년 1월~1996년 12월), pp.224-276.

· 면지 및 마을지 등의 향토지도 보조적인 참고문헌으로 빼놓을 수 없다. 특히, 향토지들은 취락과 지역단위의 과거상황이나 변모과정을 상세히 기록해 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지조사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시대적인 배경과 사회적 정황을 이해하는데 많은 참고가 된다. 이외에도, 연구지역이 협소한 경우에는 지방신문과 지방잡지로부터도 긴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2. 지형도의 검토와 분석

사회과(지리과)의 자료개발을 전제로 한 지역연구라면, 현지에 나가기에 앞서 무엇보다도 지형도의 검토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형도는 가급적이면 1 : 5,000, 1 : 25,000, 1 : 50,000의 대축적 지도를 사전에 준비하여 현지조사의 전단계에서부터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연구대상지역의 전체상(全體像)을 파악하는 데는 1 : 50,000 지형도나 1 : 25,000 지형도가 안성마춤이다. 이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자연환경(자연적 기반) 및 인문환경(인문적 기반)과 관련되는 요소들을 순서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한다. 여기에 정리한 각 요소들은 특정마을(연구대상마을)의 연구나 혹은 소지역단위의 연구를 위해 가장 기초적인 항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요한 사실은 분석과정에서 지역연구에 필요한 내용(또는 관련요소)이라고 생각되면 별도의 기록장에 기록해 두는 일이다.

1) 자연환경(자연적 기반) 관련 요소

① 마을의 위치

- 특정 마을(연구대상마을)이 해안지역에 위치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중산간 혹은 산간지역에 위치하는가(마을의 특성 파악).
- 특정 마을과 가장 가까운 마을은 해안지역, 중산간 및 산간지역 중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인접마을과의 관계성 비교).

② 지형

· 등고선을 바탕으로 특정 마을이 위치하는 주변 지형이 높은가, 낮은가.
· 주변에서 가장 높은 곳은 어디(산, 오름, 도로의 관통부분)이며, 마을의 중심부와는 어느 정도의 고도차가 나는가.
· 마을내나 가까운 주변에 위치하는 산(봉, 오름)은 몇 개이며, 마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 가장 높은 곳에서 마을까지의 거리는 대략 어느 정도인가.
· 하천(건천 포함)이 있다면, 어디에서 발원하여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가.
· 하천은 마을과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구배는 어느 정도인가.
· 마을이 해안에 위치하는 경우, 해안지형의 특징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즉, 해안지형의 구성요소가 주로 모래(사빈해안)인가, 암석(암석해안)인가.

2) 인문환경(인문적 기반) 관련 요소

① 마을의 규모(범위)

· 특정 마을이 차지하는 범위는 대략 어느 정도인가.
· 몇 개의 자연취락(취락명)으로 구성되고 있는가.
· 특정 마을의 가옥들이 어느 방향(동서남북 중)으로 치우쳐 분포하고 있는가.

② 마을의 역사

· 마을내에 비석거리, 당집, 사찰, 교회가 있는가. 있다면 마을을 중심으로 어디에 위치하는가.
· 마을내에 연자매, 도정공장 혹은 정미소는 몇 개 있는가.
· 마을내 혹은 가까운 곳에 공동묘지가 있는가.

③ 토지이용 및 연안바다의 이용

· 농경지(주로 논, 밭, 과수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개별적 농경지들은 마을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어느 지점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가.
· 마을주변에 임야, 삼림 및 목초지(목장)가 있는가, 있다면 어느 지점에 분포하고 있는가.
· 농경지에 하우스, 혹은 유리온실과 같은 원예시설이 존재하는가.

· 마을내 혹은 그 주변에 저수지나 정수장이 있는가.
· 해안지역의 마을의 경우 양어장, 양식장, 수산종묘 배양장이 있는가.
· 해안마을의 경우 포구가 있는가, 있다면 포구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④ 문화생활의 관련시설
· 마을내에 농협창고, 수협창고, 새마을 회관, 공장 등이 있는가.
· 마을내 혹은 인근 마을에 학교(초·중·고, 분교), 파출소, 은행, 우체국, 출장소, 공원 등이 있는가.
· 마을내 혹은 주변에 명승고적, 해수욕장, 관광지 등이 있는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시설인가.

⑤ 도로
· 특정 마을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는 어떤 도로인가.
· 특정 마을에 연결되는 도로는 어떤 종류의 도로들인가.
· 농로의 개설은 충분한가.
· 농로는 농작업용 트럭이나 트랙터가 지나다닐 수 있는가.

이상의 요소들은 현지에 나가지 않더라도, 지형도를 바탕으로 일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현지조사를 시행하기 전의 지형도 검토와 분석 단계는 지극히 기본적인 작업이면서도 중요한 작업이기도 하다. 지형도에서 미리 기본적인 항목이나 사항을 검토하는 작업은 현지에서의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현지의 조사에서는 의문점을 찾아내는 일이기도 하다.

한가지 주의를 요하는 것은 지형도의 제작시기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형도의 제작시기가 빠른 것일수록 앞에서 지적한 각 요소들의 실태는 조사시점과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다[3].

3) 현재 이용되는 지형도로 예를 들면, 1 : 25,000 지형도(제주도의 '신양' 및 '표선' 도폭)의 경우는 1973년에 편집한 것을 토대로 1990년에 항공사진을 촬영하고 1991년에 현지조사를 걸쳐 확인 수정한 후, 1992년에 다시 일부를 재수정한 것이다. 따라서, 본 지형도에는 1992년 이후의 변화(특히, 도로, 시가지 등)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현지조사시에 유념하여 지형도와 비교해 보아야 한다. 나아가, 지형도에는 인쇄연도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 연도를 지형도의 제작연도로 착각해서는 곤란하다. 지형도는 그 수요량에 따라 부족시에는 해마다 인쇄하여 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형도상의 여러 현상들을 수정한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

3. 현지조사(Field survey)

실내에서의 문헌연구에 이어 지형도 검토 및 분석작업이 끝나면, 연구지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지역의 실태와 움직임을 보다 구체화된 형태로 파악해야 한다. 현지조사방법은 기본적으로 연구자가 정한 주제나 연구시점(각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러나 막상 현지에서 단독으로 조사활동을 행하다 보면, 여러 현상들을 한꺼번에 접하게 되어 애당초 계획했던 순서나 과정과는 달리 복잡해져 혼돈을 초래하는 수가 많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현지조사도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2단계로 나누어 점진적으로 주제의 핵심부분까지 접근해 가는 것이 좋다.

1) 예비조사

예비조사에서는 설정한 연구지역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지형도나 문헌에서 조사한 내용들을 토대로 전체적으로 비교함과 동시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야외조사용 노트에 기록한다. 예비조사 단계에서는 설정한 주제에 대한 관련사항은 가급적 의식하지 말고, 가시적인 경관의 형태나 특정현상이 존재하는 장소(위치의 확인), 두 지점간의 대략적인 거리, 지역민들의 동향(농작업, 어로 작업, 마을행사 등) 등을 파악하는 것이 좋다. 만약, 이때 특정적으로 눈에 띠거나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항 혹은 사물에 대해서는 간단한 기록과 함께 사진촬영을 해두는 것도 치밀한 조사결과를 이끌어내는 요령이다. 예를 들어, 특정 농작물의 수확과정이나 출항했던 배가 포구에 돌아와서 잡은 고기를 하역하는 작업은 농작물이나 어류·어망의 종류 혹은 배의 크기(톤수) 등을 기록할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나아가 사진촬영의 좋은 대상도 된다.

일차적으로 지역내의 개략적인 답사가 끝나면, 나름대로의 의문시했던 사항과 지역내의 전반적인 상황을 특정인에게 청취하도록 한다. 예비조사의 일차적인 청취조사에서는 마을 이장, 새마을 지도자, 어촌계장, 청년회장, 부녀회장 혹은 연장자 등 가급적이면 지역내의 인사로서 지역의 이모저모를 많이 알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령, 마을 이장도 연령적으로 젊은 사람은 지역이나 마을의 과거사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행인이나 기타 마을 사람에게 자

신의 처한 사정을 전달하여 소개받는 방법도 있다. 또한 예비조사에서 지역 대표자를 통한 일차적인 청취조사는 사전에 연락을 취하여 시간을 약속해두면 편리하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자신이 선정한 주제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한다면, 지역 대표자는 나름대로 답변을 준비해 두기도 한다.

최근, 필자가 종달마을을 대상지역으로 한 '예비조사'의 경험[4]을 정리하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지형도를 지참하여 종달마을을 개략적으로 답사함과 동시에, 지미봉 정상에서도 마을전체를 전망하였다. 그리고 마을회관에서는 당시 이장으로부터 마을 전체의 최근상황(주요 농작물(벼·밭작물)의 재배 및 판매, 농가호수, 해안도로, 관광체험장 및 전망대의 신설 등)을 들을 수 있었다. 여기에서 당시 제염에 오랫동안 참여했던 농어가는 물론, 제염과정과 판매과정에 대해 상세히 진술해 줄 연장자의 성함과 제염지의 전체적인 윤곽 등도 청취하게 되었다. 또한 제염을 중심으로 한 당시의 마을상황도 청취하게 되었는데, 후에 이들 내용은 논문의 전체적인 방향을 잡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 나아가 종달마을의 지적도 복사 및 본 답사시 연장자의 소개 등에 대한 협조도 받을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과정은 현지답사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정보나 자료가 되었다.

예비조사에서 한가지 잊어서는 안될 것은 관공서나 농수축협 등 농어촌 지역관련 단체에 대한 방문이다. 면·읍사무소, 시·군청 및 도청, 농·수·축협본부 등에 대한 방문을 통해서는 과거 지역단위의 공사(도로 및 관광지 건설 등)나 새마을 사업(주택개량, 농지 및 농로개설, 새마을 공장 건설), 혹은 농·수·축산물의 판매 및 유통과정과 그 종류, 지부의 건설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며, 그와 관련되는 각종 수치를 정확하게 입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성을 띤다고 하겠다.

2) 본조사

예비답사가 종료되면, 그 다음은 연구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만을 염두에 두고 본격적인 자료수집과 청취조사에 전념한다. 본 조사에서의 구체적인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4) 정광중·강만익, 1997, 제주도 염전의 성립과정과 소금생산의 전개-종달·일과·구엄 염전을 중심으로-, 탐라문화(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제18호, pp.351-379.

(1) 청취조사

본 조사에서의 청취조사는 연구주제에 대한 내용을 몇단계로 나누어 실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 이유는 자신이 선정한 연구주제에 대하여 한사람의 청취 대상자로부터 모든 정보를 얻어내기란 좀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최소한 5~7명으로부터 연구주제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청취한다는 계획하에, 제1청취자(최초의 청취 대상자)로부터 제5(혹은 제7)의 청취 대상자까지 대략 어느 부분의 내용을 위주로 청취할 것인지를 정해 놓는다.

청취조사의 내용은 연구하는 본인에게는 아무리 중요한 정보라 할지라도, 정보제공자가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는 경우에는 도중에 끊겨버리기 쉽상이다. 또한 청취도중에 인근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거나 다른 방문자가 생겼을 때에도, 연구자에게는 흐름이 단절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청취조사는 경험을 지속적으로 쌓을수록 나름대로의 요령과 테크닉도 터득하게 되는 것이나, 경험의 유무에 관계없이 습관처럼 실행되어야 할 것은 청취 대상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끝나는 시점까지 한가지의 사소한 점도 빠짐없이 기록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수많은 경험을 쌓은 저명한 학자들도 이구동성으로 지적한다는 사실에서, 청취조사에 대한 기술적 습득은 현지에서 자신이 직접 기록하는 방법임을 알 수 있다.

청취조사시에 연구자는 청취 대상자의 말의 속도가 빠르고 스스로가 경험부족임을 인정하여 녹음기를 지참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행위 자체를 비난하거나 옳지 못한 방법이라고 지적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민요나 방언 조사, 또는 공장지대의 난청지대 등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녹음기 지참을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경우 청취 대상자들이 '녹음'이라는 두단어에 긴장한 나머지, 순차적으로 말꼬리를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청취결과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하고 항상 노심초사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지역연구에서의 동시녹음은 연구주제에 관련되는 상세하고도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청취 대상자를 소개받거나 임의로 선정하여 조사할 경우는 계획대로 착실히 실행에 옮기면 별문제는 없겠으나, 주로 취락단위의 좁은 지역내에서 분주하게 조사활동을 벌이다 보면, 한꺼번에 많은 지역민을 상대로 청취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한여름에 나무 그늘이나 정자밑(또는 노인정, 마을회관내의 노인회관)에서 여러사람들이 모여 더위를 식히며 여가를 보내는 모습은 전통적인 한국사회의 특징이기 때

문에,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는 것도 원활한 청취조사를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다시 말하면, 한 장소내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앉아 있는 상황하에서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얻어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청취 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궁금히 여기는 내용을 청취문항으로 삼는 것이 적격이다. 그리고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여러 사람들로부터 돌아오고 나면, 재차 필요한 내용에 대해 묻는 형식이 효율적이다. 한가지 주의를 필요로 한다면, 여러 사람들 앞에서는 특정 문중, 개별 농어가, 혹은 개인적 신상문제 등과 관련되는 내용은 가급적 삼가고, 마을전체와 관련되는 문제(지역개발)[5] 나 그 지역의 특수한 현상, 의식(의례), 풍습 및 관습, 지역민의 공동적인 대처사항(농작물, 수산물의 공동판매, 마을제, 등) 등에 대해 질문하면, 구체적인 답변들이 돌아온다. 이 때는 어느 한사람이 발언한 내용이 옳지 못하거나 시기(연도) 등이 맞지 않으면 주위의 다른 사람들이 정정해주기도 한다. 어떻든, 여러 사람들이 모인 상황하에서는 한사람 한사람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기록하려는 자세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미 청취한 내용 중 수정할 부분 등에 대해 재차 확인하는 자세가 중요하며, 기록도 간단하게 단문으로 작성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표 1은 여러 사람들을 청취 대상자로 했을 때, 지역민들의 답변을 일부 정리한 예이다(주 4 참조). 내용적으로는 제염도구 및 소금판매에 관한 것인데, 이렇게 청취한 내용은 본론부분의 '소금생산도구' 및 '판매지역'을 서로 비교하는데 아주 유효하게 활용되었다.

한편, 청취조사 시에는 연구주제에 따른 청취항목(질문사항)과 순서 등이 문제시된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청취항목은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미리 일정양식을 만들어 두는 것이 순조로운 청취조사를 위해 좋으며, 항목의 나열순서는 청취 대상자가 내용적으로 쉽게 답변할 수 있거나, 최근에 있었던 사항부터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금전관계나 각종 수치(연도 포함)를 요구하는 질문은 뒤로 돌려놓는 배려가 필요하다. 청취항목의 순서나 배열관계는 여러 참고문헌을 토대로 하거나 현지조사에 앞서, 선경험자나 전문가에게 보이고 수정하는 것도 좋다.

---

5) 마을 전체와 관련되는 문제도 서로 다른 집단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즉, 피해를 입는 쪽과 이익을 보는 쪽이 서로 마주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말다툼의 기회를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되어, 차후의 2차 혹은 3차로 예정하던 보충조사가 곤란해질 수도 있다.

〈표 1〉 종달마을에서의 집단적 청취조사의 사례

〔1〕 제염도구에 대하여(A, B, C, D, E는 서로 다른 사람을 나타냄)

1) 서슬

A : 소금밭 안에 설치, 개개인의 염전에 1개씩 설치함. 가로 : 200cm, 세로 : 150cm, 높이 : 50-60cm.

B : 서슬에서 받은 간물(함수)은 간물통(삼나무/대나무)을 이용하여 가매덕으로 이동함.

C : 가매덕은 가망집 내에 위치함.

2) 가매덕

C : 1945-50년초까지 약 9개가 있었음. → 분포(위치)는 1:5,000 지형도에 표시함.
높이 :120cm.
→ 양은 구덕(大/ 25말들이)으로 2개반 정도(1회), 24시간 정도 굽는다(화력이 좋을때).
→ 가매덕 : 무쇠, 어른 4-5인이 들어야 함.

3) 쇠글갱이

B : 소금이 눌러붙는 곳을 긁어내는데 사용함. 크기 : 쇠부분만 : 15-20cm.

4) 가망집

A : 소금을 최종적으로 굽는 곳. 면적 : 25-30평, 내부시설 : 가매덕, 중댕이, 구덕, 간물통 등.
→ 불을 뗄 때는 대개 한사람이 담당함. '가망'은 가마의 와전인 듯(?).

5) 중댕이

D : 널판 → 재료(가시나무 / 참나무) , 손잡이 → 소나무, 기타.

6) 누람지

E : 밭(염전)에서 함수가 부착된 모래를 덮는데 사용함(매일 밤).

〔2〕 제염과정, 판매

1) 판매

D : 소금 판매시 보리·조 등의 비율이 때에 따라 다르다. 예) 1(염) : 1 / 1(염) : 2 / 2(염): 1(보리, 조)

B : 판매부락은 주로 정의현 지역 → 표선, 구좌, 성산의 부락 등(송당 쪽을 경유함).
→ 팔러 갈 때는 사람의 등짐이나 소에 싣고 간다. → 배를 이용할 때 풍선(風船), 종달에는 당시 배가 많았음. 풍선은 바람이 불 때는 바람의 힘으로, 안불 때는 노를 저음.

〈이하, 생략〉 ↓ ↓

〔필자의 질문은 생략하고, 여러 청취 대상자의 답변만을 야외노트에서 정리한 것〕

(청취조사일 : 1997년 7월 27일(日) / 종달리 정자나무 아래서)

(2) 관찰·확인과 실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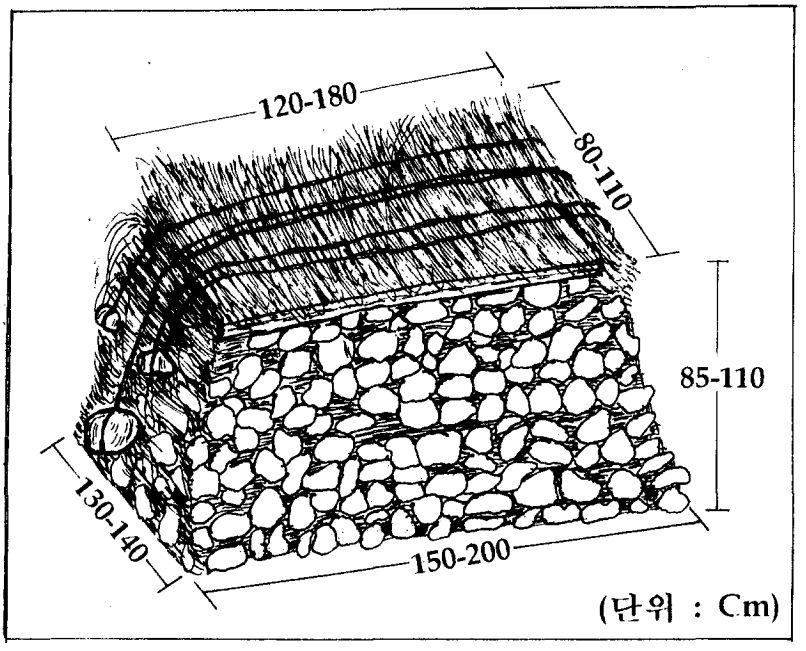
현지에서는 청취조사와 더불어 구체적인 연구 대상물이나 현상에 대한 관찰, 확인 및 실측작업도 중요하다. 이 단계에서 얻어지는 자료들도 문자 그대로 연구자 자신이 직접 경험하며 획득한 현지자료인 동시에, 연구자의 독창성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해 볼 때, 현지조사에서의 관찰과 확인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 즉, 현지조사의 전단계에서는 가시적으로 직접 접할 수 없었던 경관구성과 요소별 분포상태, 일의 상황과 전개, 특정 대상물의 외부형태나 내부구조 등을 실질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그것이 지니는 진정한 의미와 중요성, 혹은 주위의 다른 상황(상태) 나아가서는 다른 대상물과의 관련정도 등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과정은 지역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실측은 연구주제와 관련되는 구체적인 경관이나 대상물의 길이, 크기, 부피 및 면적 등을 측정하는 단계로서, 연구결과의 객관성을 부여하는 데도 유효한 수단이 된다. 그러므로, 현지조사에 임할 때 줄자, 번호판, 트렌싱페이퍼 및 카메라 등을 지참하는 것은 새삼스럽게 강조할 사항이 아니다. 현지에서 어떤 경관이나 대상을 측정하려고 할 때, 연구자 혼자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후일 보조자를 동반하여 측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나, 사정이 허락하지 않을 때는 주변에서 초·중등부 학생의 도움을 받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현장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번호판이나 볼펜, 카메라 렌즈의 두껑 등을 사용하여 우선 사진만이라도 촬영해 둘 것을 추천한다.

그림 1은 북제주군 애월읍 구엄마을의 돌소금 제조에서 사용되던 함수통('물혹')을 실측한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6]. 이 함수통은 돌소금 제조과정에서 염분이 농도가 최고도로 높아진 것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기도 하고, 함수에 섞여있는 오물을 정수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돌소금의 제조과정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이 함수통을 연구논문이나 보고서에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두가

6) 정광중, 1998, 제주도 구엄마을의 돌소금 생산구조와 특성-과거의 지리적 현상에 대한 미시적 접근-, 지리학연구, 제32집 2호, pp.87-104.



〔그림 1〕 현지조사에서의 실측 사례(애월읍 구엄리 소재 함수통)
자료 : 정광중(1998), p.96에서 전재.

지 방법이 예상된다. 하나는 현장에서 직접 스케치하는 방법과 다른 하나는 사진촬영을 한 후에 사진을 토대로 트레이스하는 방법이다. 필자는 유감스럽게도 스케치에 소질이 없는 관계로, 후자의 방법을 택하였다. 즉, 함수통의 전체적인 형태를 촬영하여 사진을 토대로 제도한 후, 각 부분에다 실측한 규격을 기입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었다. 전자의 스케치 방법을 택하는 경우에도 다소의 주의는 필요하다. 즉, 대상물의 크기를 어느 정도로 설정해야 하는지, 외부형태를 어떤 각도에서 그려야 하는지, 더 나아가 선의 굵기(활용시에 축소 또는 확대복사를 위함) 등 주로 표현방법과 관련되는 문제들이다. 이 조건들이 갖추어져야만, 차후에 실측한 수치를 기입하고 적당한 크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사진촬영

사진촬영은 예비조사의 단계에서도 지적했듯이,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앞서 개략적으로 연구지역의 특정 경관이나 현상, 혹은 대상물을 촬영하는 단계와 연구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중요한 장면만을 촬영하는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어느 것도 소홀리 할 수는 없다. 결국, 이 문제는 연구에 필요한 사진자료를 확보함

에 있어서 촬영시기를 언제쯤으로 설정하는 것이 이상적인가라는 문제와 연관된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예비조사 단계에서 1차적으로 촬영하고, 본조사 단계에서 2차적으로 촬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본조사 단계에서의 촬영은 촬영하려는 장면이나 상황에 따라 조사도중과 조사후로 구분하여 실행할 수 있다. 특히 연구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진자료는 지역내의 특정행사나 혹은 일정한 시기에만 관찰과 확인이 가능한 장면들을 제외하고, 청취조사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일괄적으로 촬영하는 것도 좋다.

사진촬영은 연구주제에 따른 용도나 촬영장소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경관이나 대상물을 '전체(전체적 경관)'와 '부분(부분적 경관)'을 고려하여 촬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7]. 즉, 사진자료는 연구논문이나 보고서 등에 게재하여 객관성과 실제성(현장성)을 높이려는 일차적인 목적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청취한 내용이 애매모호하거나, 특수한 내용을 설명하는 데에 사진자료가 쉽게 해결해 주기도 한다[8]. 그러므로 연구논문이나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현지에서 촬영한 사진을 일일이 검토하여 목록을 만들고, 특히 자료로 사용할 것은 적당한 제목과 설명을 붙이는 일도 중요한 작업 중의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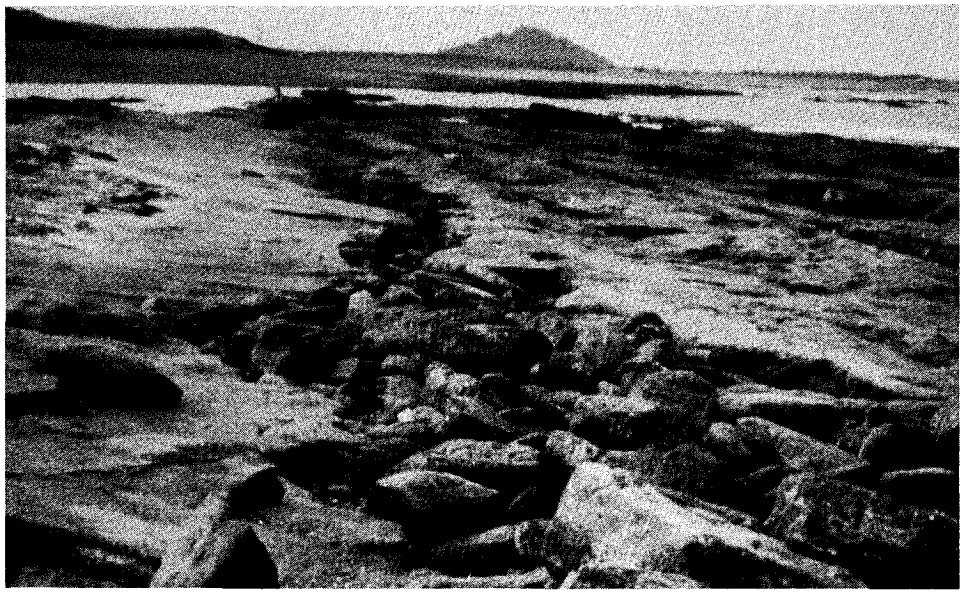
사진촬영단계에서는 몇가지 주의를 필요로 한다. 연구자의 사용목적을 전제하여 촬영의도가 분명해야 함은 물론, 자료로서의 과학성과 객관성이 충족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근거를 정확히 설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9]. 그러므로 피사체를 어떤 각도(방향)에서, 어느 정도의 크기로 표현해야 좋을지, 나름대로 여유를 갖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은 사진의 구도와도 관련되기 때문에, 결국은 자료로서의 필요성과 가치성을 가늠케하는 요소로도 작용한다.

사진 1과 사진 2는 '전체'와 '부분'을 고려하여 촬영한 예로서 신양리 지층을 표현한 것이다. 사진 1은 신양리 지층을 전체적인 범위에 걸쳐 지층의 위치와 분포범위,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 사진 2는 지층에 나타나는 구조적 특징과 특정 현상들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사진은 거리적 원근(또는 피사체의 확대, 축소)에 따른 표현이 달라지면, 자료로서의 가치나 용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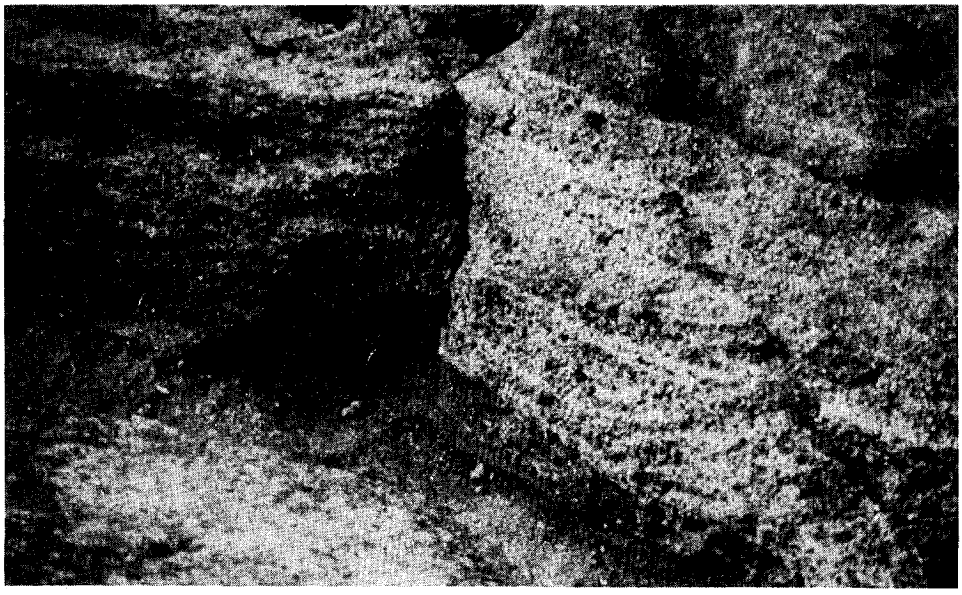
---

7) 정광중, 1996, 사진자료를 이용한 초등학교 사회과의 교재화 연구, 사진지리, 제4호,pp.47-62.
8) 김선희, 1995, 지역지리학에서의 사진이용, 사진지리, 제3호, pp.31-43.
9) 정광중, 1995, 농업지리학에서의 사진이용과 전망, 사진지리, 제3호, pp.17-30.

사진촬영시에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필름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다. 현지조사시에 필요한 필름은 크게 슬라이드용 필름과 인화용 필름으로 나뉜다. 슬라이드 필름은 연구발표시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보관에도 상대적으로 편리하나, 연구논문이나 보고서의 자료로서 사용하려면, 인화하는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이와는 반대로, 인화용 필름은 직접 인화된 상태에서 연구자료로 활용하기도 쉽고 시각을 통한 경관의 해석에도 유리한 면이 있으나, 발표장에서의 활용이나 장기간의 보관에는 다소 번거로움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좋은 방법으로서는 현지에 두 대의 카메라를 휴대해 가는 것이겠지만, 현지에서의 활동에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한 대의 카메라를 소지하여 연구목적을 수행하되, 지역연구가 끝난 후에 스스로가 발표를 염두에 두고 있거나 또는 발표를 해야만 하는 입장이라면, 필자로서는 슬라이드용 필름을 권한다. 연구자료에 이용되는 사진자료의 수는 극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필요한 수량만큼 인화한다면 경비의 지출은 최소화할 수 있다. 나아가, 경관해석이나 혹은 미진한 청취조사의 내용을 보충하는데 사용하는 사진은 번거롭기는 해도 슬라이드용 필름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다.



〔사진 1〕 전경의 예(신양리 지층 / 1998년 4월 25일 촬영)



〔사진 2〕 부분경의 예(신양리 지층 / 1998년 4월 25일 촬영)

4. 지도(주제도)와 관련도표의 작성

현지조사가 종료되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첫째로 사진자료의 정리이며, 둘째로는 지도(주제도) 및 관련도표의 작성이다. 이러한 작업은 연구주제에 대한 본론부분을 분석하고 서술하기 전단계에서 실행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문장서술상의 효용도를 고려했을 때 효과적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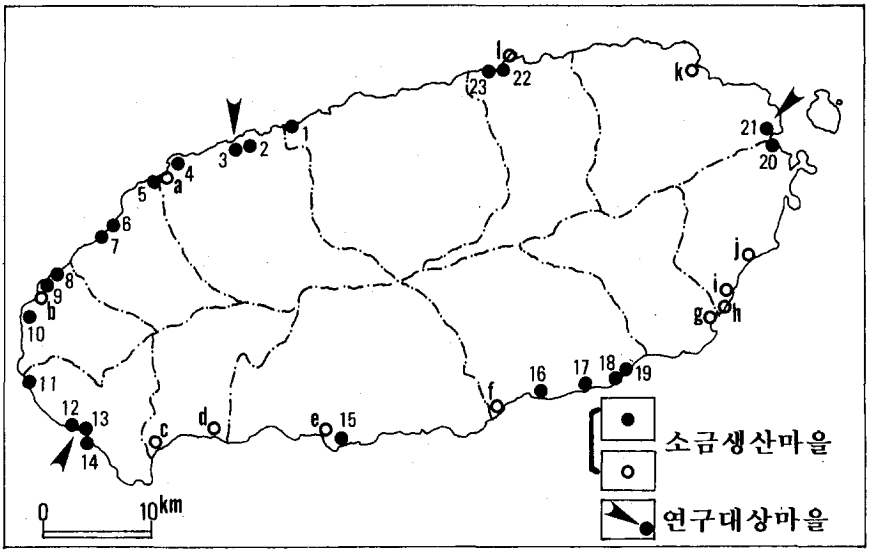
지도에는 연구대상 지역도를 비롯하여, 각종 현상에 대한 분포도, 혹은 지역적 특성이나 변화과정 등에 대한 주제도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들 주제도는 어디까지나 현지에서 청취하고 관찰·실측한 결과와 신빙성있는 통계자료를 근거로, 객관적인 측면에서 제시해야만 그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제시된 주제도는 정보에 대한 정확성과 다양성의 여부도 중요하지만, 작도상태의 양호 여부도 주제도의 생명력과 직결된다고 하겠다.

연구논문과 보고서에 사용하는 주제도는 작도하여 복사했을 때 기본적으로 그 상태가 선명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시중에서 판매하는 연필이나 볼펜, 혹은 각종 싸인펜은 부적당하다. 즉 이들 필기구로는 도로, 취락, 농경지 및 해안선 등 기본적인 선(線)의 부드러움과 정확성을 기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제도 전문용 로트링 펜(rotring pen)[10]을 사용하는 것이 자료로서의 가치를 충족시켜준다. 만약, 주변에 로트링 펜을 판매하는 곳이 없거나 경비가 문제시된다면, 가장 굵기가 얇은 싸인펜과 볼펜 등을 겸해서 제도할 수밖에 없으나, 완성후의 선명도는 장담할 수가 없다.

주제도를 제도하는 과정에서는 로트링 펜만으로도 모든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 스크린 톤(screen tone)[11]을 사용하면 공간적

10) 원래, 로트링 펜은 건축관련의 도면이나 지도를 제도할 때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가장 일반적인 것은 펜의 굵기로 0.1 0.2, 0.3, 0.4, 0.5, 0.6, 0.8, 1.4㎜까지 8종류이다. 보통은 펜의 굵기에 따라 8종, 12종, 20종 등이 원세트화 되어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없고 대부분이 독일과 일본으로부터 수입되어 시판되고 있다. 로트링 펜을 처음 사용 할 경우에는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몇차례의 연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펜의 가격이 비싸다는 흠이 있으나, 현재 한국의 대학교에서는 건축학과, 토목학과, 지리학과 및 지리교육학과 등에서 각종 도면과 지도를 그리는데 사용되고 있다. 가격은 8종 들이가 약 13만원(1997년도 11월) 정도이다.

11) 스크린 톤은 표면에는 여러 가지 모양이 그려져 있고 뒷면에는 풀기로 인해 다른 종이에 잘



〔그림 2〕 주제도의 일례(일제 강점기 제주도내의 염전분포/1910년경)
자료 : 정광중 · 강만익(1997), p.359에서 전재.

인 분할이나 면적인 효과를 강조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주제도의 미적 감각도 돋보인다.

주제도의 제도단계에서는 베이스맵(原圖, base map)을 어느 정도의 크기(가로×세로)로 정할 것인지도 중요하다. 결국 이 크기를 기본으로 대부분의 경우는 약간 축소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베이스 맵 자체가 너무 크거나 혹은 상태가 흐릿하여, 필요한 기본정보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트레이스를 하는데 상당히 곤란을 겪기도 한다[12]. 베이스 맵은 현지에서 조사한 정보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주로 1 : 1,200 지적도, 1 : 5,000 지형도 및 1 : 25,000 지형도를 사용하게 되고, 연구대상 지역도는 1 : 25,000 지형도 및 1 : 50,000 지형도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주제도를 작성하는 순서는 베이스 맵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 즉 도로, 취락, 농경지(밭, 논, 과수원, 목장 등), 산(봉) 및 해안선 등을 그리고 나서, 그 위에 현

붙도록 고안된 제도용품이다. 최근에는 만화 제작이나 아동용 책자를 만드는 데도 많이 사용되지만, 주제도 작성에서는 취락과 농경지 및 바다 등 넓은 공간을 표현하는데 아주 유리하다.

12) 베이스 맵(원도)으로 이용할 지도는 지적도가 되든 지형도가 되든, 한번 복사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복사시에는 베이스맵의 지명이나 도로 등이 선명하게 나오는지 주의깊은 배려가 필요하다.

지에서 얻은 각종 정보나 통계자료 등의 내용을 나타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현지에서 얻은 정보의 지도화는 주제도의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점, 선, 면 등을 기본골격으로 스크린 톤, 레터링(lettering)[13] 및 로트링 펜으로 표현하면 된다. 특히, 주제도에 실을 정보를 통계수치에 의거하여 표현할 경우에는 점묘도, 도형표현도, 유선도, 등치선도, 카토그램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들 중의 선택문제는 제시하고자 하는 사회적 현상이나 지리적 현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지와 관련된다.

그림 2~5는 주제도의 사례를 나타낸 것으로서[14], 앞서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방법과 순서, 또는 스크린 톤과 레터링 등의 사용법도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다. 그림 2는 로트링 펜과 몇종류의 레터링만을 사용하여 만든 간단한 분포도이다. 예를 들어, 이 주제도는 먼저 제주도의 윤곽과 행정구역을 베이스 맵에서 트레이스한 후, 두 종류의 점(레터링)으로 염전생산마을(대규모/소규모)을 구분하여 나타내고, 그외 화살표, 숫자 및 영문자의 레터링으로 본문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추가함으로써 완성된 것이다.

그림 3은 통계수치를 바탕으로 도형(圓)으로 나타낸 분포도이다. 이 주제도에서는 염전마을별 생산량을 원(圓)의 넓이로 비교해 보기 위한 것인데, 이 경우는 원이 겹치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원이 겹칠 때에는 작은 원을 전부 나타내고 큰 원의 일부분을 감추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원의 크기는 생산량의 통계치의 제곱근(square root)을 계산하면, 이 제곱근 값에 따라 크기가 정해진다. 따라서, 이 원의 크기를 토대로 제도용 전용자(drawing template)[15]에 맞추어 로트링 펜으로 그리면 된다. 그리고 필자의 경우는 마을별 소금의 생산면적을 원의 넓이로 나타낸 다음, 원안에 스크린 톤을 씌

13) 레터링은 표면에 글자나 점, 화살표, 각종 도형(주로 삼각형, 사각형, 원형) 등이 그려져 있는데, 점묘도나 기타 간단한 분포도를 작성하는데 편리하다. 스크린 톤과는 달리, 다른 종이에 밀착시켜 표면을 문지르면, 원하는 지점에 달라붙게 되어 있다. 레터링은 크기(호수별로 구분됨)에 따라 많은 종류가 있으므로 주제도의 크기에 따라 레터링의 크기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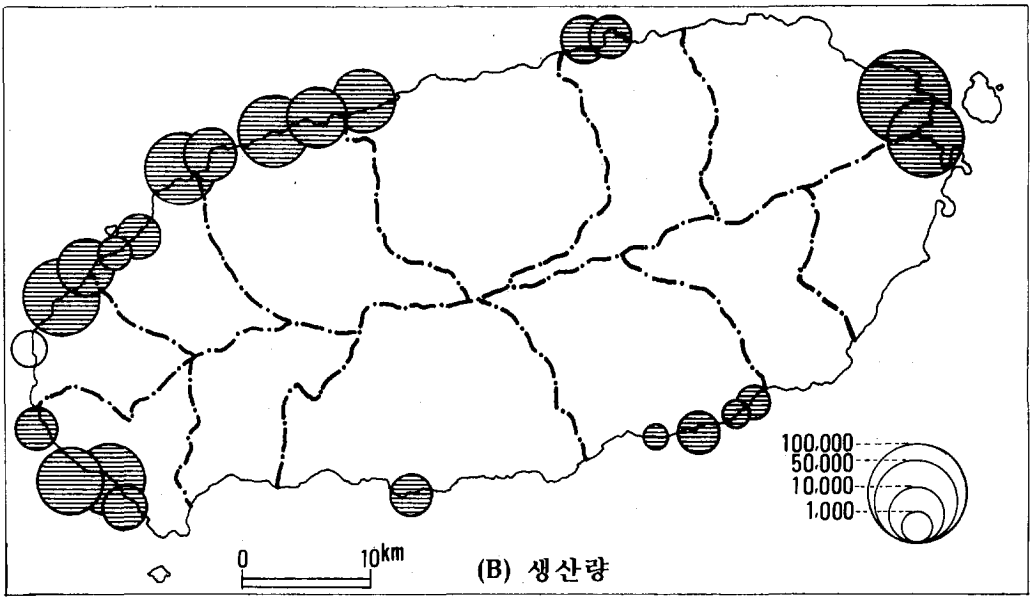
14) 정광중·강만익, 1997, 전게논문, pp.351-379.

15) 제도용 전용자는 원(또는 타원형)이나 삼각형, 사각형 및 마름모형 등을 반경 비율의 크기로 나타낸 것으로서, 1평방근부터 시작하여, 자의 크기에 따라 16평방근, 20평방근, 혹은 36평방근까지 나타낸 것들이 지도화 작업에는 많이 사용된다. 이 제도용 전용자는 일반 문구점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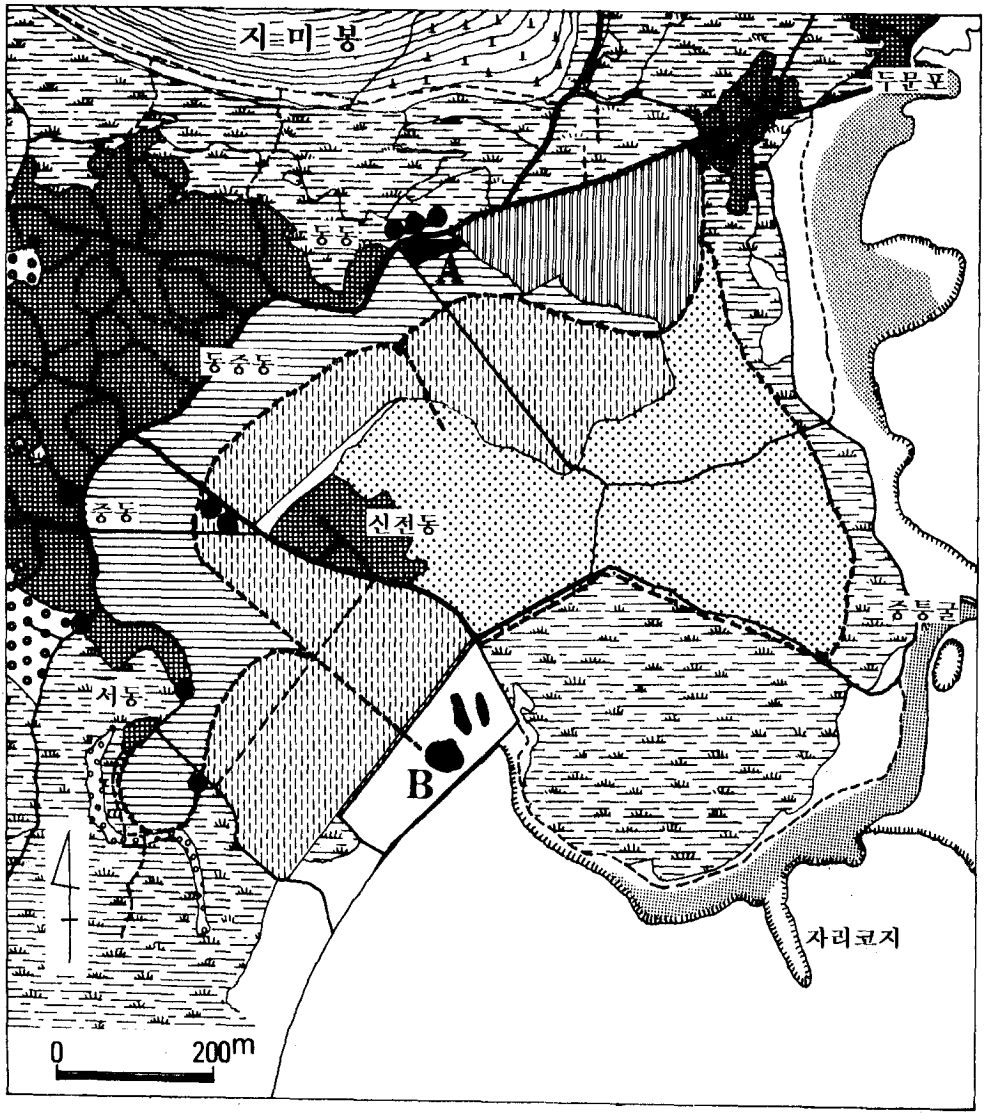
워 크기를 돋보이게 하였다.

그림 4는 스크린 톤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다소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 주제도이다. 베이스 맵은 1 : 5,000 지형도로서 성산도폭(067, 도엽번호 NI 52-9-18-067)을 축소하여 사용하였으며, 이 주제도에서는 성격을 달리하는 공간을 스크린 톤으로 나타냈다. 그리고 여기서는 먼저 성격을 달리하는 경계선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는 염전을 경영했던 4명의 주민들을 통해 경계선을 결정할 수 있었다. 일단 설정된 각 공간에는 필요한 종류의 스크린 톤을 갖다댄 후, 불필요한 부분(성격을 달리하는 공간)을 잘라내어야 한다.

그림 5는 일부 레터링(삼각점 및 원형점)을 제외하면 로트링 펜만을 사용하여 작성한 것이다. 1 : 50,000 지형도에서 해안선과 주요도로, 취락 및 등고선 등을 표시한 후, 소금의 판매경로를 표시하기 위해 삼각점을 활용한 것 뿐이다. 따라서, 이 주제도는 로트링 펜의 사용만으로도 충분히 현지에서 청취한 정보를 지도화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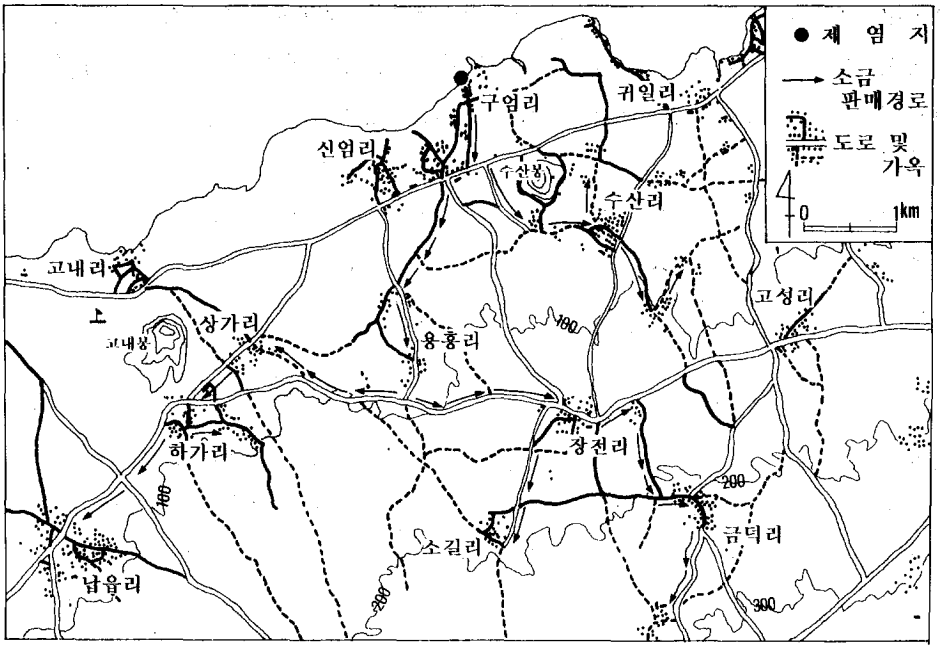


〔그림 3〕 주제도의 일례(1910년경 제주도내의 염전별 생산량)
자료 : 정광중·강만익(1997), p.360에서 전재.



〔그림 4〕 주제도의 일례(소금생산 중단 이후 종달마을의 토지이용 변화)

자료 : 정광중 · 강만익(1997), p.365에서 전재.



〔그림 5〕 주제도의 일례(구엄마을의 돌소금 판매대상취락과 경로)
자료 : 정광중(1998), p.99에서 전재.

한편, 주제도의 작성에서 반드시 삽입되어야 할 요소는 축척과 방위, 지명과 범례, 주제도의 제목 및 자료출처이다. 축척과 방위는 베이스 맵에 나타난 것을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베이스 맵을 축소하여 제도할 경우에는 축척도 반드시 축소된 비율로 나타내야 함을 잊어서는 안된다. 범례에는 주제도에서 필요한 사항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수치나 정보를 표시하며, 지명은 주제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주요 지명만을 지형도나 현지에서 입수한 취락내의 작은 지명[16]을 표시하면 된다. 주제도의 제목은 주제도를 제시한 목적을 쉽게 파악할 수

16) 예를 들면, 주제도 4의 '자리코지' 및 '중퉁굴'은 현지주민으로부터 입수한 취락내 지명의 일례이다.

있는 함축적인 표현으로 하며, 제목 앞에는 제시하는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붙인다. 그리고 주제도나 그래프의 경우, 제목은 하단에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다[17]. 자료출처의 경우도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이 좋다. 가령, 통계자료나 현지에서의 청취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면, 각각 그에 상응하는 표현으로 기입하여 자료의 정확성과 독창성을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도표는 크게 그래프(graph)와 표(table)로 구분되는데, 그래프는 어떤 현상에 대한 속성이나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해지며, 각종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프는 '그림'의 종류에 속하기 때문에 주제도의 범주에 넣어 일련번호를 표기하는 것이 좋다.

표는 현지에서 얻은 정보를 요령있게 정리하는 방법중의 하나이다. 표를 작성할 때에는 우선 가로항과 세로항의 기준항목의 설정은 물론 단위설정 등에도 유념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정보를 가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프나 표의 경우도 제목과 자료출처를 간략하고 정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5. 조사결과의 정리

지역연구에 대한 최종적인 정리작업은 궁극적으로 논문이나 보고서의 형태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작업을 전제로 현지에서 입수한 자료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현지에서 바쁘게 조사활동을 하다 보면, 지형도나 임시 노트 등에 대충 적어 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자나 숫자 또는 간단한 스케치 등에 이르기까지 선명하지 못한 부분이 적지 않다. 특히, 지형도상에 위치나 분포를 표시한 경우에는 청취한 내용을 잊어버리기 전에 정확한 위치와 분포를 표기해 두어야 구체화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지역연구의 결과에 대한 정리작업은 가능한 한 빨리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18]. 이것은 현지에서 조사한 내용들이 뇌리속에서 사라지기 전에 정리해야만 능률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고, 자료검토를 통해 부족한 자료에 대한 보충조

17) 일반적으로 지도나 도표의 제목(자료출처 포함)은 학회지에 따라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논문을 투고하는 경우에는 본고에서의 지적과 다를 수 있다.
18) 小峯 勇, 1988, 地理學と 地域研究法, 大明堂(日本 : 東京), 178p.

사 혹은 시간활용 등을 사전에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19]. 반대로, 수집한 자료가 방대할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불필요한 자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려해야만 한다. 여러 자료들을 일일이 검토하고 정리하는 작업은 연구논문이나 보고서를 쓰기 시작하는 단계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다[20].

6. 보고서의 작성

연구논문이나 보고서의 작성이 전제되었을 때는 예비조사가 끝난 후 대략적으로 논문이나 보고서의 목차구성(plot)을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참고문헌의 조사·검토 → 지형도의 검토·분석 → 예비조사의 단계가 종료되면, 논문이나 보고서의 목차구성도 어느 정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목차구성은 그 이후의 본조사 과정을 거치면서도 충분히 수정이 가능하며, 전체적인 계획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인지 판가름이 난다. 이처럼, 지역연구의 성과는 미리 정해 놓은 목차순에 의해 작성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연구논문이나 보고서의 형식은 다양하게 작성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구성은 「제목 → 서론(들어가면서, 머리말 등) → 본론[21] → 결론(나오면서, 맺음말 등) → 참고문헌 → 주석(註釋)」 등의 순이다. 그러므로, 지역연구에 의한 사회과(지리과)의 논문과 보고서의 작성형식도 타전공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특성상 항목별로 유의해야 할 사실만을 요약하기로 한다.

먼저, 제목에는 지역연구의 특성이 나타나도록 연구대상 지역명을 넣어서 표현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지역명이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구엄리 돌소금의 ……'와 같이 행정단위를 전부 사용하면 긴 제목으로 인해 나쁜 인상을 심어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행정단위의 일부분을 생략하거나 하부의 행정단위만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만약 설정한 제목이 길어질 경우에는 부제(subtitle)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서론에는 주로 문제의 제기(연구의 필요성), 연구동향, 연구지역의 개요 또는 연

19) 正井泰夫·小池一之編, 1994, 卒論作成マニュアル-よりよい地理學論文作成のために-, 古今書院(日本 : 東京), 214p.
20) 山村順次, 1995, 新觀光地理學, 大明堂(日本 : 東京), 270p.
21) 보통은 장별 제목으로 대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본론의 장별 구성은 2~4장 정도이다.

구지역의 선정 이유, 연구목적 및 방법 등을 서술하게 되는데, 여기서 특히 타분야와 다른 점은 연구지역의 개요와 연구지역의 선정이유이다. 이 두가지 내용은 독립된 항목으로 나누어 서술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항목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다. 보편적으로 문장서술이 장황해 질 때에는 독립된 항목으로 나누는 것이 좋다. 연구지역의 개요에는 지형도를 검토하고 분석한 내용(예를 들면, 주변 지형, 접근 도로, 취락과 토지의 분포 등)이나 도지, 군지, 읍지, 마을지 등의 향토지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성씨별 주민구성, 역사, 문화재의 분포 등), 혹은 통계연보에 제시되는 기본내용으로서 지역면적, 인구수(남녀별, 연령별 등), 농가수, 농가인구, 토지이용별 면적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됨으로 십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본론은 연구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주로 현지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서술하면 된다. 이 경우, 주제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은 몇 개의 항목(절)으로 구분해서 서술하는 요령이 필요하다. 아무리 훌륭한 문장력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가지 내용에 대해 지나칠 정도의 장황한 설명은 현지조사에서 귀중하게 얻은 자료의 중요성보다도 문장에 의한 피상적인 서술만이 돋보이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은 논문이나 보고서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 특히, 본론에서는 현지의 구체적인 자료(주제도, 도표, 사진 등)가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때는 단순히 자료만을 제시하여 참고하라는 형식은 지양하도록 한다. 가급적이면, 자료제시와 함께 강조할 내용을 분명하게 제시한다.

본론을 작성할 때의 필자의 경험을 소개하도록 한다. 필자는 지역연구에 의한 결과를 논문으로 작성할 때는 일단 현지입수의 주요자료들, 즉 주제도, 관련도표, 및 사진들을 작성하고 분석한 후에, 자료로서 가치가 인정되는 것은 논문의 어느 부분(장·절별)에 배치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그 다음에, 선택된 자료와 청취조사의 내용, 기타 참고문헌들을 토대로 장별 핵심내용과 흐름을 정하여 쓰기 시작한다. 물론, 목차에 따른 서론부분의 문제제기 혹은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지역선정의 이유 등은 본조사를 마칠 즈음이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다. 그리고 문장서술시에는 한편의 영화와 같이 중간 중간에 변화와 굴곡을 고려해서 작성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전체적인 논문구성이 하얀 백지위에 일직선을 긋는 것처럼, 서론에서 결론까지 특징적인 변화가 없어서는 독자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지 못한다는 나름대로의 계산때문이다.

결론에서는 본론의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하는 동시에 연구결과의 핵심을 명확하게 서술한다. 그리고 연구진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남겨진 과제)과 후속연구와의 연관성 등을 서술하는 것도 중요하다.

참고문헌에서는 정리하는 방법이 문제시될 수 있다. 서술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한가지로 통일하여 사용해야 하며, 특히 맨 마지막에 일괄적으로 정리할 경우에는 'ㄱ, ㄴ, ㄷ…'의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동일저자의 것이 중복될 경우에는 발표된 연대순이나 참고한 순서대로 적는다[22]. 주석에는 각주와 미주의 두형태가 있는데, 여기에는 인용한 참고문헌 혹은 연구자가 서술한 내용을 뒷받침해 주는 참고문헌, 본문의 서술과 관련하여 보충해야 할 설명 등을 전제로 활용한다.

Ⅲ. 나오며

본고는 지역연구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교사들의 여가를 이용한 사회과(지리과) 학습자료의 개발을 전제로, 지역연구에 대한 기초적인 방법을 소개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본고의 작성 배경은 최근 초등학교의 학교단위별 열린교육의 실천과 확산에 따라, 일관된 교실내 수업이나 지정된 학습자료에서 탈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었다. 한국의 초등학교에서는 지역별로 혹은 학교별로 교사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필자는 생각한다. 그 중, 가장 큰 이유를 지적한다면 과다한 업무량일 것이다. 따라서 교사 개개인이 별도의 시간을 활용하여 지역연구를 실행할 수 있을지는 필자 자신도 실로 염려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필자는 최근 한국의 교육환경과 교육방법이 항상 새로운 변화와 이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지향하고 있는 한, 사회과의 특성을 살리는 길은 현장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현장학습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을 직시해 볼

22) 만약, 동일저자의 문헌이 같은 해에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는 저자명이나 연대의 끝에 a, b, c …의 순서로 표기한다(예: 정광중 a, 1988, … / 정광중, 1988 a, …). 여기서 a, b, c…는 위첨자로 표기하기도 한다(예: 정광중 [a], 1988, … / 정광중, 1988 [a], …).

때, 앞으로 사회과의 학습에서는 교사들의 희생정신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교사들의 여가시간을 활용한 지역연구의 성과가 학습자료의 개발로 연계시킬 수 있다면 그 이상의 바램은 없다.

지역연구의 성과는 현지에서의 자료수집만을 철두철미하게 행한다고 해서 해결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전단계에서 문제의식의 고양과 지역선정의 필요성, 연구결과의 유추, 현지에서의 조사활동 및 자료수집 등 모든 단계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역시 핵심은 현지에서의 조사활동과 자료수집에 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연구의 성패와도 관련되는 문제로서 지역적 상황에 따른 조사시기(농번기, 농한기)의 적절성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23].

최근 지역연구의 동향을 보면, 일정지역을 통해 새로운 이론이나 학설을 적용하여 검증하려는 경향보다는 현재시점에서의 지역성을 밝히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결국 일정시점에서 지역의 생생한 역사와 문화의 한 단면을 서술하여 보존함으로써, 동시대의 이웃이나 혹은 후세에 전하려는 의미가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결국, 이 사실은 지역적 보편성과 특수성을 찾아내려는 일련의 과정이 우선시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며, 그것은 결과적으로 사회과 학습자료의 개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바이다.

23) 市川健夫, 1985, フィールドワーク入門-地域調査のすすめ-, 古今書院(日本 : 東京), 242p.

참 고 문 헌

김선희, 1995, 지역지리학에서의 사진이용, 사진지리, 제3호, pp.31-43.

정광중, 1995, 농업지리학에서의 사진이용과 전망, 사진지리, 제3호, pp.17-30.

정광중, 1996, 사진자료를 이용한 초등학교 사회과의 교재화 연구, 사진지리, 제4호, pp.47-62.

정광중, 1998, 제주도 구엄마을의 돌소금 생산구조와 특성-과거의 지리적 현상에 대한 미시적 접근-, 지리학연구, 제32집 2호, pp.87-104.

조동규편, 1988, 자연지리조사법(Ⅰ), 교학연구사.

조동규편, 1988, 인문지리조사법(Ⅱ), 교학연구사.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1997, 학계연구동향(1990년 1월~1996년 12월), pp.224-276.

이기석·윤정숙, 1982, 한국지리논문목록, 보진제.

이기석·한주연, 1988, 한국지리논문목록(1981-1985), 보진제.

이기석·이영현, 1993, 한국지리논문목록(1986-1990), 백산출판사.

정광중·강만익, 1997, 제주도 염전의 성립과정과 소금생산의 전개-종달·일과·구엄 염전을 중심으로-, 탐라문화(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제18호, pp.351-379.

市川健夫, 1985, フィールドワーク入門-地域調査のすすめ-, 古今書院(日本 : 東京).

小峯 勇, 1988, 地理學と地域研究法, 大明堂(日本 : 東京).

山村順次, 1995, 新觀光地理學, 大明堂(日本 : 東京).

正井泰夫·小池一之編, 1994, 卒論作成マニュアル-よりよい地理學論文作成のために-, 古今書院(日本 : 東京).